G20 정상회의 폐막…'트럼프 2기' 보호주의 우려 공감대

자유무역 가치 강조 속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
'북한군 참전' 등 우크라 전황 격화…반응도 제각각

제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국제 다자회의에서 정상들은 자유무역 체제 보장과 기아·빈곤 퇴치 등을 위한 공통의 의지를 확인했으나, 기후 위기 재원 확보 방안이나 지정학적 긴장 완화 제언 등 당면한 미로 앞에서 길을 찾지 못한 채 어수선한 분위기를 끝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트럼프가 온다'…보호무역 경계감 물씬='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모인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집결 첫날인 18일 공동 선언문을 내놨다.

이는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인데, 발표 시점을 두고 유럽연합(EU) 국가들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다고 현지 매체 G1은 보도했다.

▲국제 경제 및 정치 상황 ▲사회 통합과 기아·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전환 및 기후 행동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개혁 ▲G20의 포용성 및 효율성 등 소단락으로 구분된 선언문에는 기후 변화 대응, 빈곤 인구 감축, 사회 불평등 축소 등 의제에 대한 회원국의 다양한 협력 의지가 담겼다.

전 세계 상위 경제강국 정상들은 특히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전후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감을 분명히 했다.

G20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고 공정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며 투명한 다자무역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의 교역 질서를 위협하는 도전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AP·AFP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행보에 주목했다.

지난주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부각한 시 주석은 최빈국들에 대한 '일방적 개방'(unilateral opening) 정책 확대를 천명하는 한편 서방 주요국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하며 "발전하는 중국행 급행열차" 탑승권 세일즈를 벌였다.

시 주석은 또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연합(AU)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 함께 과학기술 혁신 전파 이니셔티브를 위시한 경제적 연대를 꾀하는 등 '트럼프 대비' 우군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취임 전 중국이 "자국에 경계감을 보이던 국가를 포함한 우군 확보 및 타국과의 관계재건"에 적극성을 띨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푸틴이 움직인다'…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확인=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천일을 맞은 이날 G20 정상들은 북한군 참전,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러시아의 핵 교리(독트린) 개정 등으로 격해진 전황에 제각각으로 반응하며, 높아지는 지정학적 긴장감을 방증했다.

"핵 교리는 무책임한 수사"(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러시아 책임을 묻지 못해 유감"(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푸틴 대통령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비판과 "러시아도 자구책 필요"(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같은 옹호가 교차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신 G20에 참석했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날린 채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해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목소리를 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힘 빠진 '남미 좌파 대부'·사진 빠진 '세계 대통령'='남미 좌파 대부' 룰라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과 기아·빈곤 퇴치 등 자신이 중점적으로 내세운 주제로 정상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 내내 안간힘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쪽짜리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룰라 대통령은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 출범 합의, 글로벌 부유세 부과에 대한 협력 의지 확인, 유엔 등 개혁안 공감대 형성에는 성공했으나, 최빈국을 위한 수조 달러의 기후 재원 마련이나 화석 연료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컨센서스 마련에는 실패했다고 현지 매체 G1은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는 일부 정상들의 지적에도 관련 발언을 제한하는 일도 있었다고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지적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엔 '지각 등장'으로 단체 사진을 찍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경험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역시 촬영장에 늦게 나왔지만, 주요 언론들은 대체로 바이든 대통령의 '권불십년' 임기 말 단상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폐막 전 실내에서 이뤄진 단체 사진 촬영에선 앞줄에 섰고, 환한 미소로 마지막 국제 다자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공교롭게도 그의 옆으로는 앞서 단체 촬영을 하지 못했던 캐나다·이탈리아 총리가 나란히 자리했다.

내년 G20 정상회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제24기계화여단 병사들이 19일(현지시간) 러시아 진지를 향해 152㎜ 방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 美 탄도미사일로 러 본토 타격 …푸틴 '핵카드' 맞불

'신속한 종전' 트럼프 재집권 두 달 앞두고 확전일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결국 러시아 본토 타격을 감행, 1000일째를 맞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전일로에 접어들게 됐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해 우크라이나도 핵공격 대상으로 포함하는 '핵카드'로 맞불을 놨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오전 3시 25분 우크라이나군이 접경지 브랸스크주에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방공시스템이 6발 중 5발을 격추했으며 나머지 1발에도 손상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측은 성공적 공습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격의 성패를 떠나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미국 정부는 아직 승인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 승인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퇴임 전 우크라이나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 개월간 요청해왔으나 미국은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있었다. 러시아 본토 타격으로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대한 나토 회원국의 미사일 공격은 나토의 직접 개입이라고 주장했던 만큼 이날 에이태큼스 발사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고정밀 장거리 무기를 자체로 사용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서방 병력이 동원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은 서방의 직접적인 분쟁 개입이라는 새 국면을 의미한다고 거듭 경고했었다.

이같은 충돌 양상은 '신속한 종전'을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더욱 가열될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압박하는 휴전 협상에 대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유리한 '고지 점령'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러시아는 이날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 교리(독트린)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또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한국맛에 반했다' 코스타리카 한식축제 2만명 운집

한국에서 1만4000㎞ 가까이 떨어져 있는 중미 코스타리카에서 한식 축제가 현지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19일(현지시간) 주코스타리카 한국대사관과 코스타리카 산호세 시청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 국립공원에서 열린 제3회 한식축제(K-Festival Gastronomico)에는 2만명 넘는 이들이 찾아 한국의 맛을 즐겼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한류 팬클럽과 자원봉사자까지 힘을 보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지에 진출한 BBQ치킨 매장까지 참여해 축제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불고기, 김밥, 떡볶이, 핫도그 등을 맛볼 수 있는 한식 부스와 함께 한복, 태권도, 케이팝, 한글 캘리그라피 등을 테마로 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전근석 주코스타리카 대사는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이들이 찾아와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여줘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행사로 한국의 매력을 더 발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에고 미란다 멘데스 산호세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이 행사에는 전 세계 문화에 문을 활짝 열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산호세 시민과 방문객들은 한국 문화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거침없는 비트코인

6일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한때 9만4000달러선 넘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6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9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9분(서부 시간 오후 2시 9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1.15% 오른 9만2355달러(1억2869만원)에 거래됐다.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사상 처음 9만4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지난 13일 기록했던 9만3400달러대를 뛰어넘는 수치로, 6일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이다.

미 대선일이었던 지난 5일 오전 7만 달러선 아래에서 거래되던 가격과 비교하면 2주 만에 상승폭도 약 35%로 늘렸다.

이날 상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그동안 지정학적 불안이 커질 때마다 하락했던 것과 달리 이날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금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자산은 많은 투자자에게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몰수될 수 없는'(non-confiscatable) 장기 헤지(분산·회피)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령 특정 국가에서 재산 몰수의 위험이 있다고 해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몰수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역사가 없고 극심한 변동성으로 단기 트레이더에게 유리할 수 있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매력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CNBC 방송은 짚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8계>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 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23타경 4187	1	곡성군 겸면 마전리 38-5 1130㎡	답	25,990,000 25,99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3타경 83289	2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43-3 1192㎡[향후원상회복명령발해질가능성있음[사실조회회신서참조]]	답	65,560,000 65,56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3타경 84480	1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14 517.1㎡[전년근1/3지분전부]	대	3,447,400 3,447,4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2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11-1 366.4㎡[전년근1/3지분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전	2,198,340 2,198,340	지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13 586.9㎡[전년근1/3지분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전	3,521,340 3,521,340	지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3타경 84831	1	담양군 용면 용연리 184 823㎡[강승원1/6지분전부.현황묵전,묘지[분묘6기,표지석6조]소재.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전	3,154,680 3,154,680	지분매각.맹지.인접지와현황경계선불명
	2	담양군 용면 용연리 73 3901㎡[강승원1/6지분전부.지상두릅등매각제외.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19,504,800 19,504,8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4	담양군 용면 용연리 127-1 2684㎡[강승원799/7194지분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지상두릅등매각제외.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전	11,029,330 11,029,330	지분매각.맹지.인접지와현황경계선불명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4타경 63602	1	나주시 그린로335, 제1동 제3층 제304호 [빛가람동,수플러스빌딩] 178.41㎡[현황조사서상관리비미납상태[공용부분13,586,604,전용부분1,038,136원]]	근린시설	320,000,000 320,000,000	2024타경3020 [중복]
2024타경 66397	1	광산구 임방울대로825번길60-26, 제3층 제310호 54.60㎡	오피스텔	104,000,000 104,000,000	현황조사서상관리비300만원미납
[아파트]					
2023타경 84947	1	북구 문산로65, 101동 4층 412호 59.97㎡[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제20조]에전세사기피해자우선매수권있음]	아파트	146,000,000 146,000,000	
2024타경 632	1	북구 평교로40, 제302동 제11층 제1103호 84.9685㎡	아파트	173,000,000 173,000,000	
2024타경 2799	1	서구 치평로77, 110동 10층 1001호 [치평동,중흥아파트] 84.93㎡	아파트	387,000,000 387,000,000	
2024타경 64230	1	북구 각화대로33, 제8동 제9층 제905호 [각화동,금호아파트] 83.71㎡	아파트	219,000,000 219,000,000	
2024타경 64506	1	북구 서하로194번길15, 제204동 제8층 제802호 [오치동,오치주공아파트] 44.52㎡[임병완2/9지분전부]	아파트	17,333,000 17,333,000	지분매각
2024타경 65561	1	북구 첨단연신로217, 제108동 제20층 제2002호 [신용동,첨단2지구중흥에스-클래스] 106.7627㎡	아파트	767,000,000 767,000,000	2024타경69471 [중복]
2024타경 66694	1	광산구 장덕로6번길59, 제106동 제15층 제1504호 [장덕동,장덕마을 부영애시앙] 84.2801㎡	아파트	350,000,000 350,000,000	
2024타경 68799	1	서구 풍암순환로5, 제201동 제4층 제401호 [풍암동,대주파크빌] 127.20㎡	아파트	410,000,000 410,00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4. 12. 5.[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4. 12. 12.[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해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매수신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어,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서